수필이 있는 풍경사진

권영주
푸른소아과.내과의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1핑크 뮬리와 댑싸리

핑크 뮬리는 라틴어로 Muhlenbergia capllaris이며 capillaris는 의학에서 실핏줄 같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이란 뜻으로, 길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처럼 보드랍게 하늘하늘 휘날린다. 가을이 되면 핑크빛으로 변해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벼과 식물로서 억새처럼 생겼으나 분홍 쥐꼬리새라는 우리나라말보다는 알 듯 모를 듯한 핑크 뮬리란 이름이 귓가를 간질거려 처음 듣는 사람은 발음이 잘 안 되고 금방 뇌리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대단위 관상용으로 재배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하늘공원에서도 댑싸리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국적이면서 한없이 부드럽고 친근하고 분홍빛 핑크 뮬리는 함께 자리 한 댑싸리와 잘 어울린다.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댑싸리도 가꾸어 한데 모아놓으면 몽글몽글 타원형인 붉고 푸른 댑싸리 군락으로 멋진 장관을 연출한다. 빗자루풀이라고도 하는 댑싸리도 이제는 운치 있는 빗자루로서 역할을 다하고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으니 낙엽을 쓸어내는 자연스러운 맛도 사라지는 것일까? 멋진 댑싸리 군락을 배경으로 너도나도 카메라 앞에 서서 아름다운 모양새에 들뜬 표정으로 행복해보인다. 우리 모두 조그마한 일에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질 권리도 있다.

mp저널28호 내지.indd 86 2018-12-21 오전 11:19:12

mp저널28호 내지.indd 87 2018-12-21 오전 11:19:13

mp저널28호 내지.indd 88 2018-12-21 오전 11:19:14

#2 알함브라 궁전의 헤나날리페 별궁 정원

스페인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은 중세 이스람 왕국의 아름답고 신비한 궁전으로 육백년간의 역사가 있다 .언덕에 세워진 화려한 이스람 양식의 문양과 글자 장식은 단순하나 짜임새 있게 배치, 그리고 웅장하고 흐트러짐 없는 외관, 적절히 배치된 울창한 나무와 정원, 멀리서 끌어온 수로와 그 옛날 수압차로 조절되는 수도 시설 등 가히 중세 건축 예술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전쟁에 패한 이스람 왕은 자기왕국이 사라진 것보다 알함브람 궁전을 떠나가는 슬픔이 더 해 눈물을 흘러야 했던 그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했을까? 이사벨라 여왕은 화살 하나 박히지 않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에 속한다.

헤나날리페(generalife) 별궁정원은 여름별궁으로 큰 정원수로 둘러 쌓여, 대칭적이고 환상적으로 손질된 아름다운 정원수의 미학적인 자태는 흐르는 물과 어우러져 정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마 에덴의 동산을 마음 속에 그리면서 살았으리라.

별궁정원은 유럽의 정원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중세에는 '빛은 동방에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람의 걸작인 알라브람 궁전은 중세 유럽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원은 자연 그대로 그 모습을 살리고자 했으며, 그 전형적인 왕궁 정원이 창덕궁의 후원이라 생각된다.

mp저널28호 내지.indd 89 2018-12-21 오전 11:19:14